Title: (가제) 당신의 비행에 날개를 달아주다 "날다" Team: 서울 2반 4팀

1. 큰틀:주인공이

2. 출연자: 박명규, 곽영후, 김혜수, 정형진, 김정아, 김상현

출연자 상세 정보

곽영후: ENTP. 재기발랄, 스파크형

enfp 곽영후 -> 재기발랄, 스파크형 ->> 엄청 즉흥적으로 여행을 잡아버리는 스타일, 덤벙됨 >>>> 펜 안가져와서 옆 사람한테 펜빌리거나, 아니면 스튜어디스한테 한번에 하나씩 갖다달라는 사람 경험이 있음. 그리고 이제 길치 능력이 있어서 승장강 출구를 못찾아 공항에 1~2시간 지연된 적 있음

entj 김혜수 -> 타고난 리더, 지도자형 ->> 화가 많음, 어떠한 체제에 불만이 잡히면 컴플 개잘검 -> 이런 기능 왜 없음 왜 이거 계속 똑같은거 해야대 화내는 느낌 -> 더 잘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 스튜어디스. 맨날 갖다주지만 enfp같이 여러번 시키는 사람 되게 짜증나 함.

istj 박명규 -> 실용적인 조언자, 실용적임 -> 팩트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스타일이니까 ->> 스튜남자. 기내식 준비하는데, 이제 몇개를 데워야 하는지 이제 수량 파악을 하고 싶은데, 여분의 준비된 안먹은 기내식 다 버리는거 너무 아까워함

infj 김상현 -> 통찰력 있는 선지자, 예언자 형 ->> 눈치를 많이 보고, 공감능력이 좋아서 사람들한테 기빨림 예를들어서 스튜어디스가 힘들어해 그러면 미안해서 못누름

estj 정형진 -> 엄격한 관리자, 경영자형 ->> 순수 불만, 불만을 나 말고 누군가 해결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런느낌쓰

->> 세관 신공 왜캐 귀찮음? 불편사항 생각 하는 사람

infp 김정아 -> 중재자, 희생많이함.. ->> 소심해서 화장실 갈때 옆사람 자고있는거 깨울까보ㅓㅏ 개 급한데 못감

Cut	Video	Context	Audio	Time
1	심플 배경에 안내 문구 출력	본 영상은 날다 홍보 상 제작된 상황극 영상입니다. 특정 항공사나 직원의 의견과 무관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2	GONCHAN GONCH	서로다른 MBTI 별 비행기 관련 경험 6명의 비행기 탑승자 및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3	Rene#1-	승객 인터뷰 진행 첫번 째 질문 : 여행 좋아하시나요?(자막) 곽영후 : "네!!!! 텐션 개높음! 어 오늘 여행 가는건가요? 미쳤다 ~~~~"(가방을 들쳐매며) 정아 : "네 좋아해요 제가 아랍어를 좀할 줄 알아서 이집트 유학도 다녀왔어여ㅎㅎ"(부끄 부끄) 상현 : "좋아합니다."(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형진 : "좋아하죠. 근데 바빠서 거의 1년전에 일정을 잡아서 가는 편이에요 "(조금 엄그진 스타일로) 명규 : "네 좋아합니다. 중국, 일본, 미국도 다녀왔어요. 재밌더라구요"(평상 시 말투)	

4		Q2 : 공항이나 비행기 이용 시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나요?(자막)	
5		영후 : 음 (상상중)	
		(인터뷰장면)제가 조금 길치거든요ㅎㅎ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승강장이 어딘지 몰라서 예약 했던 버스를 많이 놓쳤어요하핫	
6	정류장	(상상장면) : 수속을 마친 후 공항 안에서 영후 : "와 바다다~~~~ 어 버스정류장이 어디지 한시간 후 오 찾았다!!! 어 근데 버스가 이시간이 많나?? 물어보는중 네?! 벌써 간지 30분이 넘었다구요?!?!? 하 택시 타야지 모,,,"	
		(인터뷰 장면) 택시를 조금 많이 타서 마지막 날에는 돈이 모자라더라구요? 그래서 컵라면먹고흑(억지 로 우는 제스쳐를	

7	상현 : 저는 (상상중)	
8	(기내 안)  - :혜수 클로즈인 (다같이)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네잠시만요~ (곤란한표정을 지으며). (상현 클로즈업)  "아되게 바빠 보이시네(꼬르륵) 아배고프다 (바람소리이이이) 아춥다 (표정만 보여주고니레이션으로)근데 뭐너무 바빠 보이시니까내가 참자 얼마나 힘드시겠어"  (인터뷰 장면) 장거리 여행 같은 거보면 너무 아내가 시겠어"  (인터뷰 장면) 장거리 여행 같은 거보면 너무 바빠 보이시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시키고 싶은데 자리는지가 보인달까? 그래서 조금 내려서 하자~하면서 기내 서비스를 잘 안이용했던 것 같아요	

9	형진 : 많죠,진짜(상상 중)	
	(기내 안)	
	주문을 시키고 형진이 나온다.	
	(10분후)	
10	"아니 시킨지가 언젠데 안오는거야! 아니 이렇게 큰 비행기 안에 승무원 저 몇명이서 이 주문을 다 해결하는게 말이나 돼?! "(불만족스러운 얼굴을 지으며)	
	(기내식 주는 상황)	
	혜수 : "음식 나왔습니다.~~"	
	(기내식을 주면서)	
11	형진 : (나레이션)어 나 근데 두부 알러지 있는데 두부가 들어가 있네!? 아 이러면 못먹는데그냥 남겨야 겠다하유 정보가 너무 부족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인터뷰 장면)	
	항공사 직원분들이 바쁜거라서 직원분들이	

	-	
	해결할게 아니라 이거는 항공사 잘못인거 같아요.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조금더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같은 알러지 있는 사람들에게 알러지 정보를 표시해주어야지 이러다가 제가 못 발견하고 먹다가 탈나면 너무 위험하자나요~~~?!!!!! (그라데이션식 화면 빨개지면서 주전자 끊는 소리 나면서 화냄)	
12	정아 : 음(상상)	
	(나레이션) 제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거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장면 전환, 옆자리 명규 앉아있는데 자고 있음) '아 화장실 가고 싶다 어 근데 옆자리 주무시고 계시네어떡하지 으 급한데 지나가다가 깨면 어떡하지좀만 참아볼까'	

	(나레이션으로 표정은 눈치보면서) (인터뷰 화면) 칸이 너무 좁아서 제가 움직일때 마다 옆자리	
	분들께 불편을 드리는 것 같아서 눈치 보여요 ㅠㅠㅠ	
	명규 : 음 (상상)	
	혜수 : " 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세관신고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작성 ~~~~"	
	"명규 : (아 맞다 펜 안가져왔구나옆자리 에서 쓰는 펜을 본다. (정아언니 펜 쓰는중)하빌려달라고 해야되는데 미안하네)"	
	"저기 죄송한데" (장면 전환)	
	(도착 후 세관신고대 앞. 줄이 엄청 김)	
	명규 :"와 줄 엄청 기네 요즘이 어떤 시댄데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안되나? 이거 또 언제 기다리냐" (인터뷰 화면) 이렇게 세관 신고서 나눠줄 때 펜을 안주는 항공사가 있더라구요. 그럴 때 옆자리 분들한테 빌려야 되는데 조금 미안하고 그렇더라구요ㅎㅎ 그리고 세관신고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줄이 길이서 불편하더라구요	
Kene#1	Q:현재 무슨일을 하고 있나요?(자막) 혜수:"저는 OO항공 스튜어디스를 O년째 하고 있습니다~"	
	Q: 스튜어디스 생활은 어떠신가요? 혜수 : 하 (장면 전환) 영후 : 음료수 시키기 영후 : 과자 시키기 영후 : 아 맞다 다른거 시키기 계속 부름	

아까 시킨 과자는 언제 나오나요? 지금 10분이		
넘었는데 혹시 수문이   누락 된건가요 <b>?</b> "		
혜수 : "앗.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탕비실로 달려가서 허겁지겁 준비하는 장면)		
(나레이션)		
이렇게 주문이 몰릴 시간 대가 있으면 저희가 주문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승객 분들의 컴플레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기내식을 준비하는 장면)		
혜수: "오늘 기내식이 불고기랑 스테이크네 몇개 씩 해야되지? 아몰라 그냥 100개 100개 준비해 가야겠다"		
(인터뷰 화면)		
(침묵)^^		
(나레이션)		
이 6 분에게 날다 플렛폼이 구비된 기내 서비스를 제공 해드렸습니다.	좋은 배경음악 on	
	나오나요? 지금 10분이 넘었는데 혹시 주문이 누락 된건가요?" 혜수: "앗.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탕비실로 달려가서 허겁지겁 준비하는 장면) (나레이션) 이렇게 주문이 몰릴 시간 대가 있으면 저희가 주문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승객 분들의 컴플레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기내식을 준비하는 장면) 혜수: "오늘 기내식이 불고기랑 스테이크네 몇개 씩 해야되지? 아몰라 그냥 100개 100개 준비해 가야겠다" (인터뷰 화면) (첨욱)^^	아까 시킨 과자는 언제 나오나요? 지금 10분이 넘었는데 혹시 주문이 누락 된건가요?" 혜수: "앗.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탕비실로 달려가서 허겁지겁 준비하는 장면) (나레이션) 이렇게 주문이 몰릴 시간 대가 있으면 저희가 주문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승객 분들의 컴플레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기내식을 준비하는 장면) 혜수: "오늘 기내식이 불고기랑 스테이크네 몇개 씩 해야되지? 아몰라 그냥 100개 100개 준비해 가야겠다" (인터뷰 화면) (첨묵)^^

	우리 화면 클로즈업해서		
	날다 마크부터 보여주고		
	클릭해서 각 메뉴 움직이는거 보여주고		
	(나레이션)		
	(날다 메인 화면)		
	날다는 여러분들의 이런 불편함을 해소 시키고자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 다 다	
	(날다 3개 나눠진 서비스 화면)	싸피 시작 전에 그	
우리 서비스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영상은 꼭 들어가야 할듯/ 화장실 도어락도 여기서 보여주자	간단한 회원 가입 후에 메인 창에서 각자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소리 있잖아 그런 느낌의 신뢰감 주는	
	(세관신고서 화면)	저작권 없는	
	세관신고서 관련 설명	음악 실행	
	/31111 A CO V		
	(기내식 화면)		
	기내식 관련 설명		
	(음식 화면)		
	과자 및 음료 관련 설명		
	(화장실 센서 작동 시연 영상)		

	 화장실 센서 관련 설명	 
	(화장실 화면)	
	화장실 설명	
	(공항 정보 화면)	
	공항 정보 순차적으로 설명	
	(편의 물품 및 의료 화면)	
	편의물품 및 의료 설명	
	(스튜어디스 화면)	
	스튜어디스 화면 설명	
	마지막 인터뷰로 간단하게 질문 Q. '날다' 서비스를 사용해보니	
	어떠신가요?	
	각자 대답 나올때마다 화면 전환	
	(화면 전환 전에 인터뷰 화면에서 우영우 바람씬 하나씩 넣어주면 웃길듯)	
	영후 나레이션	
	(영후가 공항 정보 화면 만지는 장면)	
	(이후 공항에서 나와서 바로 헤매지 않고 버스정류장에 도착하는 장면)	
<u> </u>		 <u> </u>

	기내에서 남는 시간에 공항에 관련된 정보나 승강장 위치를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버스를 제시간에 탈 수 있었어요!	
	상현 나레이션 (상현이 편의물품 시키는 장면) (빠르게 담요를 받은 상현은 기분 좋은 얼굴로 담요를 덮고 눈을 감는다) 확실히 서비스도 빨라졌고, 승무원분들의 눈치가 안보여서 더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형진 나레이션 (형진이 기내식 정보를 보는 장면) 이렇게 기내식 정보에 알러지 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저같이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많이 편리한 서비스 인 것 같아요	

	정아 나레이션	
	(화장실 정보 관련 센서를 보는 장면)	
	한눈에 이렇게 화장실 정보를 볼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고 왔다갔다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명규	
	(세관신고서 작성 화면을 사용하는 명규)	
	이렇게 펜 없이 온라인으로 세관 신고를 할 수 있어서 간편하고, 이전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항을 나갔을 때 세관 신고 줄이 없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혜수 (기내식 주문 목록을 확인함)	
	이렇게 한눈에 기내식이나 기타 필요 물품들을 주문한 손님의 정보와 수량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근무환경이 훨씬 편리해 진 것 같아요!	

	6명이 번갈아 가면서	
	영후 : 당신의	
	상현 : 여행에	
	형진 : 날개를	
	정아 : 달다	
	명규 : 날다	
	혜수 : 날다와	
	다같이 : 여행해요!	
	마지막에 우리의 로고 나오고 end	